

지렁이의 아들 건천과 뱀 이야기

옛날 전라도 광주의 북촌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 딸을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입이 절로 벙긋했습니다.

딸은 점점 자라면서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찌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딸의 얼굴을 보고 반하지 않는 총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딸은 마음씨까지 고왔습니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모두 며느리로 삼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혼담이 들어와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신랑감을 구해 딸과 결혼시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딸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는 이런 딸이 걱정되어 하루는 딸을 불러 앉혀 놓고 물었습니다.

“애야, 요새 무슨 고민이 있니? 네 얼굴빛이 좋지 않구나.”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걱정을 끼쳐 드려서...”

“아니다. 나는 그저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물어보았을 뿐 이란다. 정말 아무 일 없었니?”

“.....”

딸은 묻는 말에 대답없이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쩌면 좋아요. 실은 밤마다 제 방에 찾아오는 총각이 있어요. 자춧빛 옷을 입었는데, 저는 그 총각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잠만 자고 가거든요.”

부자는 딸의 말을 듣고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딸인데 그 딸의 방에 밤마다 찾아오는 총각이 있다니,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작가 | 신현배

4201708@hanmail.net

약력

시인, 아동문학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에 당선

창주문학상, 청구문학상, 광명문학

대상 수상

시집 <거미줄>, <매미가 벗어 놓은

여름> 외 지은 책 다수

“그 총각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 애야, 오늘밤에 총각이 네 방에 오면,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의 옷에 바늘을 꽂아 두어라. 그가 눈치 채지 못하게 말이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 날 밤, 딸의 방에 자춧빛 옷을 입은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총각은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총각이 잠이 들자 그의 옷에 바늘을 꽂아 두었습니다. 총각은 새벽이 되어 방에서 나갈 때까지도 이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부자가 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실이 풀려 나갔구나. 이 실을 따라가 봐야겠다.”

부자는 딸의 방에서 풀려나간 실을 따라갔습니다. 실은 마당을 가로질러 북쪽 담장 밑 땅속으로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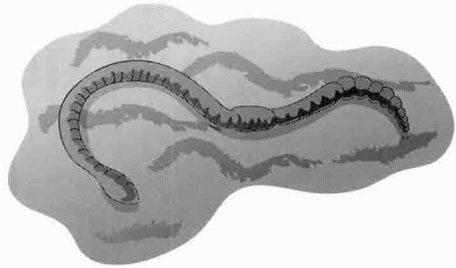
“으음, 땅을 파야겠다.”

부자는 호미를 가져와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실 끝이 어디 있는지 흙을 파내어 찾아보았습니다.

순간,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땅속에는 지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실을 펜 바늘은 지렁이 허리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밤마다 딸아이의 방에 찾아온 총각은 바로 지렁이였구나. 지렁이가 사람으로 변해 찾아왔어.”

이런 일이 생긴 뒤 딸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사내아이를 길렀습니다.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나무그늘에 두고 발일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그늘에서 잠든 아기는 배고파 잠이 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발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배고파 울어도 그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때, 어디선가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아기 옆에 엎드리더니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농부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저, 저기 좀 봐. 호랑이가 아기에게 젖을 먹고 있어.”

다른 농부도 나무그늘 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네. 호랑이가 와서 돌보는 걸 보면 저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닌가 봐.”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하며, 아기가 뒷날 크게 될 인물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는 씩씩하게 자라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견훤이다.”

아이는 스스로 이름을 짓고 무술을 배우는데 온힘을 쏟았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장수가 되었고,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견훤이 사람들을 끌어 불러모아 세력을 키울 때의 일입니다.

“병사들이여, 완산주(지금의 전주)를 공격하러 가자!”

견훤은 군대를 이끌고 행군하여 한 마을에 진을 쳤습니다.

그 곳에서는 완산성이 상당히 멀었습니다. 따라서 기습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닭이 울 때 진격을 한다 해도 완산성에 닿으면 날이 흰히 밝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견훤은 부하 장수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공격을 미룰 수도 없다. 우리는

기필코 완산성을 점령해야 한다.”

“첫 닭이 울면 서둘러 공격합시다. 그러면 날이 새기 전에 완산성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미리 공격할 준비를 하고, 첫 닭이 울면 곧바로 출발하자.”

이튿날 새벽, 첫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미리 대기해 있던 병사들은 완산성으로 물밀듯이 쳐들어갔습니다.

“공격하라, 공격하라!”

견훤은 맨 앞에 서서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병사들은 기습 공격을 퍼부어 완산성을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견훤과 부하 장수들은 승리감에 취해 있으면서도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완산성에 닿아 전투까지 끝냈는데도 어째서 날이 밝지 않는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히 첫 닭이 울 때 출발했는데요.”

의문은 나중어야 풀렸습니다. 알고 보니 견훤의 공격을 앞당기게 하려고, 용이 닭으로 변하여 일찌감치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은 용이 닭으로 변한 곳이라 하여 ‘용계원(龍鷄院)’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완산주를 차지한 견훤은 지령이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견훤이 왕건과의 전쟁에서 패망한 곳은 지금의 논산 지역으로, 닭을 뜻하는 ‘닭다리들’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지령이에게는 닭이 천적이기에,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견훤의 군대는 왕건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